SU 2026 news letter

SU-대학혁신지원사업
웹소식지 vol.1

























University innovation 대학혁신지원사업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SU-대학혁신지원사업
2026 웹소식지 vol.1

Su News letter

contents

1. 학습 컨설팅 ---- 2
작성자 / 노유빈

2. 전공탐색 페스티벌 ---- 6
작성자 / 정한비

3. 1인 미디어 비교과프로그램 ---- 12
작성자 / 주예린

4. 집단상담 프로그램 ---- 15
작성자 / 방다인

5. 취업동아리 ---- 18
작성자 / 권시은

6. 콩콩마켓 ---- 21
작성자 / 조혜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홈페이지
http://uisp.sy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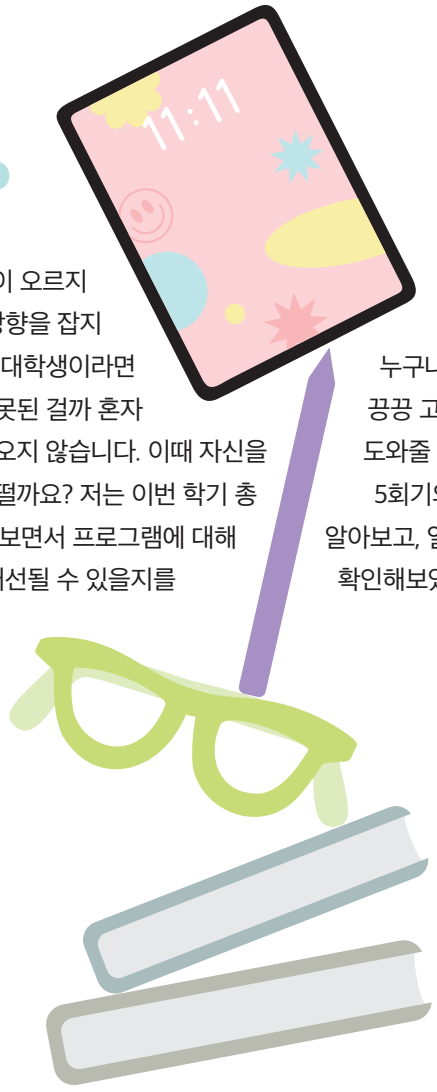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인스타그램
@su__innovation

본 웹소식지는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재학생 홍보단인 「SU-PANEL」 구성원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세부 프로그램들을 살펴 내용을 직접 구상 및 취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STUDY GUIDE

성적 향상의 길라잡이, 학습 컨설팅

작성자 노유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올바른 공부 방향을 잡지 못해
막막했던 경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있죠. 뭐가 잘못된 걸까 혼자 끙끙 고민해봐도
쉽게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자신을 도와줄 전문가가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번 학기 총 5회기의 학습
컨설팅을 받아보면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얼마나 학습
습관이 개선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학습 컨설팅이란 무엇인가요?

학습 전문가와 1:1 상담을 통해 나의 학습 패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나만의 학습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공부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본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성취를 높이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습 컨설팅 운영 및 신청 방법

학습 컨설팅은 삼육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매 학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에는 비대면 상담은 매주 화요일, 대면 상담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었으며,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습니다. 대면 상담은 다니엘관 501호 상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상담 요일과 시간은 학기별 운영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의 공지사항을 확인한 뒤 본인의 일정에 맞는 시간을 예약하면 됩니다.

1회 상담으로 컨설팅을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학습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고 점검받고 싶다면 정기적인 상담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학습 컨설턴트와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다회기 상담을 통해 학습 전략을 수정·보완하고, 스스로에 대한 종합적인 학습 성찰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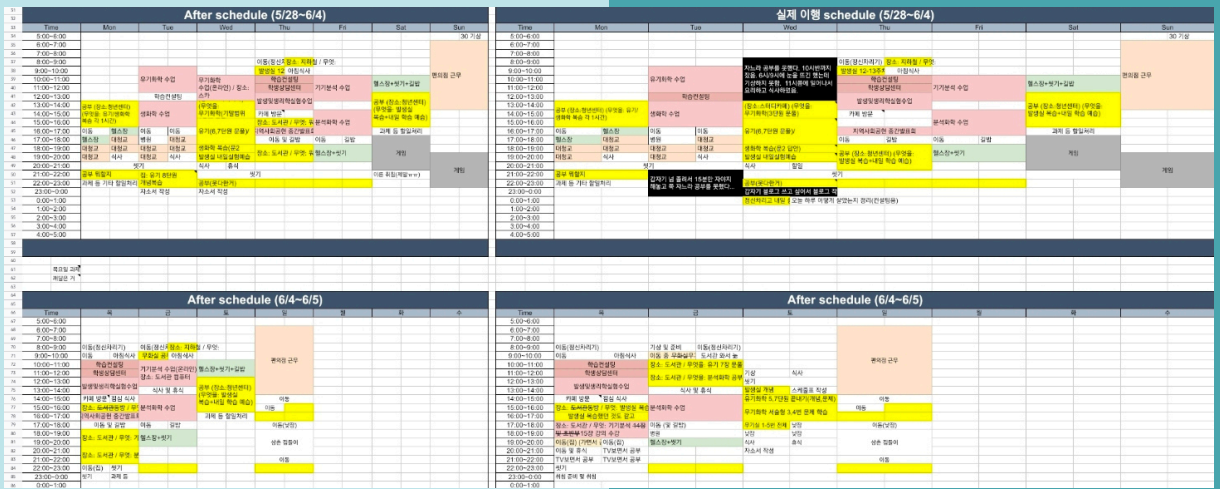
필자 체험기!
직접 참여해 본 학습 컨설팅

성적 향상은 물론, 올바른 공부 방향을 찾기 위해 학습 컨설팅의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자는 이번 학기, 약 6주 동안 꾸준히 학습 컨설팅에 참여하며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경험했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낀 점과 변화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1.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학습 컨설팅은 한마디로 '나만의 학습 로드맵을 그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막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는 다짐만으로는 성적을 올리기 어렵거든요.

학습 컨설팅에 참여하면 먼저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MLST- II 와 LQS라는 학습검사를 통해 자신의 학습 동기, 습관, 전략, 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합니다. 이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전문가인 컨설턴트와 1:1 상담을 진행하며, 나의 학습 패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컨설팅 후 계획 일정표와 실제 이행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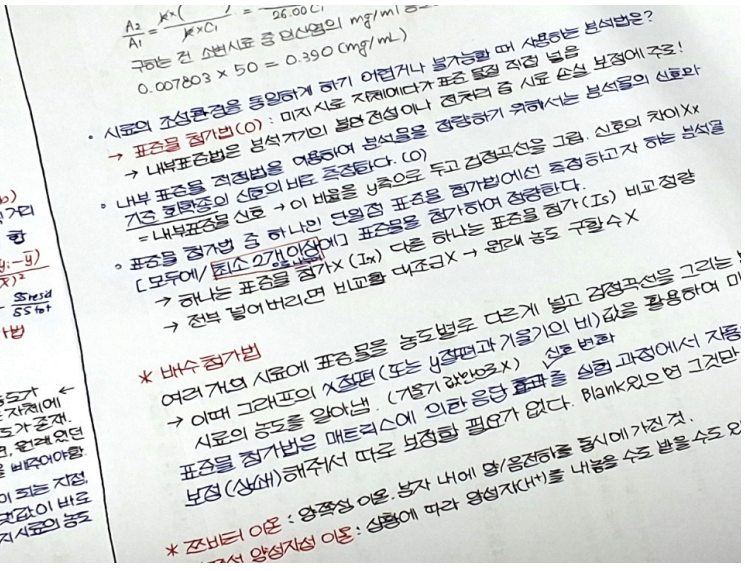
공부 때문에 고민은 많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무엇을 고쳐야 할지 막막한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2. 처음 학습 컨설팅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원과 학교의 촘촘한 가이드 속에서 공부하는 방식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와서 100% 자기주도 학습 환경으로 전환되니,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법을 알지 못해 적잖이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었고, 나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Q3. 진단 결과를 처음 확인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 솔직히 많이 주눅 들었습니다. 강점보다는 약점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제 와서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에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컨설턴트님께서는 결과가 낮게 나온 것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지금부터 이것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그 뒤에 부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컨설턴트님께서도 도와주시겠다 말씀해주신 덕분에 '나도 변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Q4. 다회기 상담을 선택한 이유와 장점이 있다면요?

단발성 상담은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데 유용하지만, 행동의 변화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다회기 상담은 매주 컨설턴트님께 지난주 나의 학습 실천 상황을 보고하고 점검받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마치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학습 멘토'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나의 공부 과정을 지켜봐 준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더 다잡게 만들었고,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학습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1회 상담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차례의 상담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참여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Q5. 학습 컨설팅 이후, 공부 습관이나 생활 패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변화는 '메타인지의 향상'입니다. 하루 시간표를 그려보니 내가 언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웹서핑을 하거나 메일함을 습관적으로 확인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무의미한 활동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시간을 공부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즉, 학습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순수 공부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공부할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계획을 세웠고, 수면 시간까지 조정하며 제 몸에 맞는 학습 패턴을 정립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직접 확인하며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있어요.

Q6. 컨설팅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팁이 있다면요?

처음에는 계획을 세워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학교 시간표처럼 강제성이 없다 보니 자꾸만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컨설턴트와의 다음 상담 날'을 일종의 마감 기한으로 활용했습니다. 컨설턴트님의 안타까운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아서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할 때는 장소 선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화요일 학교 일정이 있을 때 도서관 1층의 방음부스를 이용했는데, 집중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상담 환경을 스스로 잘 조성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Q7. 컨설팅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컨설턴트의 조언이 있나요?

상담 초기에 제가 너무 조급해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 컨설턴트님께서 '공부는 짧은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이다. 오늘 하루 조금 부족했더라도 내일 다시 시작하면 충분하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라는 조언 덕분에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Q8. 마지막으로 학습 컨설팅을 고민하는 학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학습 컨설팅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저 또한 막막함 속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저만의 학습 리듬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끙끙 앓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외롭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명확히 어떤 문제인지 몰라 해결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으면 나 자신이 싫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고민한다면 길은 훨씬 더 명확하고 빠르게 보입니다. 학습 컨설팅과 함께할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Checklist

학습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학습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 ☐ 공부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이 매번 작심삼일로 끝난다.
- ☐ 시험 기간만 되면 공부 방법이 막막하고 불안하다.
- ☐ 나의 학습 습관이 효율적인지 객관적으로 점검받고 싶다.
- ☐ 자기주도적 학습의 구체적인 전략을 찾고 싶다

Major Festival

방황하는 당신을 위한 전공탐색 페스티벌

작성자 정한비

대학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은 언제나 설레면서도 막막하기도 합니다. 타 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궁금하지만 시도하기는 두렵고, 복수전공을 고민하다 마음을 접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고민 가득한 여러분을 위해 지난 5월 27일 솔로몬 광장에서는 '2026 전공탐색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전공 간의 높은 장벽을 허물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마음껏 탐색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과연 우리 학우들은 어떤 전공의 매력에 푹 빠졌을까요? 생생한 부스 후기부터 운영진과 참여 학생들의 솔직한 인터뷰까지 아낌없이 탈탈 털어왔습니다. 축제만큼 핫했던 그날의 현장,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죠!



부스 체험기

❶ 일상 속 과학 퀴즈와 귀여운 종이 스퀴시 만들기(바이오융합공학과)

바이오융합공학과 부스에서는 전공 지식을 일상과 접목한 흥미로운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랜덤으로 문제를 뽑아 바이오학과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제가 뽑은 문제를 함께 맞춰보실까요?

Q. 치아 표면을 튼튼하게 만들어 세균이 만드는 산(Acid)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고, 충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치약 속 핵심 화학 성분은 무엇일까요? (힌트: 원소 기호 'F')

정답은 바로 '플루오린'으로도 불리는 '불소'였습니다! 다행히 정답을 맞추고 기분 좋게 달콤한 사탕 상품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부스 한편에 마련된 '종이 스퀴시 만들기' 체험에도 참여해 보았습니다.
바이오융합공학과 학우들이 정성껏 준비해 준 도안을 예쁘게 색칠하고, 테이프로 꼼꼼하게 코팅해 모양을 잡은 뒤 솜을 가득 채워 넣었는데요. 제 손으로 직접 완성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여운 종이 스퀴시,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❷ 긴장감이 넘치는 음표 리듬 게임

다음으로 발길을 옮긴 곳은 경쾌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던 음악학과 부스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SNS에서 큰 유행을 끌고 있는 리듬 게임 영상을 보며, 박자에 맞춰 눈앞에 놓인 북을 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다른 학우들이 하는 모습을 볼 때는 참 쉬워 보였는데, 막상 스틱을 쥐고 참여해 보니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눈과 머리로는 박자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데 손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았고, 화면에 쏟아지는 음표를 보며 박자를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네.. .. 실패했습니다. 이번 부스 체험을 통해 제가 박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역시 저와 음악학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❸ 내 성향을 닮은 동물 찾기

마지막으로 방문한 동물자원과학과 부스에서는 밸런스 게임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성향을 알아보고, 그 성향과 가장 닮은 동물이 무엇인지 매칭해 주는 흥미로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밸런스 게임에 참여해보았는데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최종 결과를 확인해보니 '피라냐'가 등장해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피라냐라고 하면 보통 사납고 날카로운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니까요.



하지만 뒤이어 적힌 설명을 읽어보니 무척 신기했습니다. '까칠해 보이지만 내 사람을 아끼는 든든한 성격'이자 '의외로 겁이 많고 무리 지어 다니는 순한 맛 모범생'이라는 분석이 적혀 있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 성향과 맞아떨어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스에서는 동물자원과학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동물자원과학과의 마스코트인 동빈이, 하비, 범수, 재용이의 포토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귀여운 카드를 놓칠 수 없어 저도 얼른 팔로우 버튼을 누르고 가장 마음에 드는 동빈이 포토카드를 기분 좋게 받아왔습니다. 귀여운 굿즈 덕분에 지나가던 학우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부스였습니다.

부스 운영 학생 인터뷰

[바이오융합공학과 24학번 조윤정]

Q1. 전공탐색 페스티벌 부스를 직접 운영해 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희 학과는 간단한 일상 속 과학 퀴즈와 바이오학과 관련 모양들을 프린팅해 종이 스퀴시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종이 스퀴시 만들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하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었는데요. 학우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즐겁게 체험해 주시고 열중해서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종이 스퀴시를 소중하게 쥐고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부스를 열심히 준비한 보람을 깊이 느꼈습니다.

Q2. 전공으로 바이오융합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래 신산업 트렌드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걸맞은 학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있었는데, 바이오융합공학과는 '건강'이란 키워드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와 실행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건강 트렌드를 추구하는 학과라고 생각해서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3. 우리 학과만의 자랑하고 싶은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희 학과는 바이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등 총 3가지 세부 트랙으로 전문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 분야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특히 항산화 소거력 실험이나 단백질 분석 같은 실무적인 실험들을 직접 해보며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분야와 맞는 전공들을 선택하며, 한정되어 있기보다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고 선택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애정이 많으셔서, 진로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해 주시고 방향을 잘 잡아주신다는 점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Q4. 우리 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희는 이론 중심적이기보다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직접적인 과정을 통해 응용할 수 있어 미래 산업에 걸맞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직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이론과 원리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자세하게 자신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5. 다섯 글자로 우리 학과를 표현한다면?

"무궁무진한"

바이오 분야는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산업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이 매일 새롭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로나 발전 가능성 역시 무한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며 다가올 미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저희 학과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심리학과 21학번 학생]

Q1. 부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참여 학생의 반응이나 순간은 언제였나요?

부스에서 주의적 맹시를 다룬 'CS 고릴라 실험' 영상을 보여주고 퀴즈를 내는 활동을 진행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두 학생이 함께 부스를 방문했는데, 한 명은 모든 퀴즈를 완벽히 맞힌 반면, 다른 한 명은 고릴라의 등장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일부 퀴즈만 맞혔습니다. 서로 '진짜 이걸 못 봤다고?'라며 같은 영상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인지한 결과를 신기해하고 즐거워하시던 반응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Q2. 전공으로 상담심리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시절 또래상담 동아리를 하며 자연스럽게 상담분야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명존중에 관련된 UCC를 제작하며 타인에게 상담의 힘이 얼마나 큰지 간접적으로 느꼈고, 상담교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3. 우리 학과만의 자랑하고 싶은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공 공부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타인과 소통하는 법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학문을 잘 배우면 배울수록 내면이 단단해지고 갈등에 있어서 성숙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이 상담심리학과만의 차별점입니다.

Q4. 우리 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상담심리학과는 어떤 분야와 융합하더라도 잘 어울리는 학과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자신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니,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스 참여 학생 인터뷰

[경영학과 22학번 유승우]

Q1. 전공으로 경영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영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깊이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복잡한 현실 문제를 데이터로 깔끔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평소 앞에 나서기보다는 묵묵히 내실을 다지고 조용히 실천하는 것을 좋아하는 제 성향과도 잘 맞아서 경영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2. 우리 학과에 관심이 있거나 다전공·전과를 고민하는 학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경영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든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매력적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해진 정답을 외우기보다,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실무를 직접 경험하면서 나만의 개성과 실력을 키우고 싶은 학우분들이라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고민하고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3. 오늘 정말 많은 부스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발길을 이끌었던 부스는 어디였나요?

체육학과 부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동기들과 함께 부스에 방문해 악력 측정을 했는데요. 이미 쟁쟁한 실력의 학우분들이 많아 아쉽게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악력과 좌전굴 측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상품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간호학과 24학번 이은빈]

Q1. 전공으로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국내에서는 외상센터에서 응급환자를 돌보고, 해외에서는 재난이나 난민 상황에서 의료 봉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봉사와 선교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 간호학과를 선택했습니다.

Q2. 많은 부스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깊은 부스는 어디였나요?

유아교육과에서 진행한 '동요 듣고 맞추기' 부스였습니다. 제가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부스 근처를 지나가다 익숙한 동요들이 들려 반가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밝은 에너지로 부스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유아교육과 학우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멋있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학과 22학번 신지섭]

Q1. 전공으로 건축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창 시절, 건축학과에 재학 중이던 친형의 대학 생활을 곁에서 지켜보며 건축이라는 분야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다양한 형태와 개념, 그리고 명확한 정의를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 나가는 형의 모습을 보며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공간에 대한 고민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저 또한 그런 멋진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에 건축학과 진학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Q2. 우리 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건축학과는 그 어떤 학과보다 바쁘고 체력적인 소모가 큰 곳입니다. 이론과 실기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고, 공부해야 할 분야가 매우 넓고 방대하여 5년제 과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학과에 비해 전과율이 다소 높은 편인데, 이 역시 체력적인 한계가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든 과정을 끈기 있게 극복해 낼 수만 있다면, 그만큼 얻어가는 이점이 확실한 학과입니다. 인문, 예술, 기술 등 정말 다양한 분야를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고 취업률 또한 높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힘든 여정이겠지만 이를 이겨낼 열정이 있다면, 건축학과는 여러분에게 수많은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부스 참여 소감

저는 상담심리학과, 바이오융합공학과, 동물자원과학과뿐만 아니라 식품영양학과, 사회복지학과, 체육학과, 음악학과 등 무려 7가지가 넘는 학과 부스들을 부지런히 돌아다녔는데요.
평소에는 깊이 접해보기 어려웠던 여러 학과의 개성 넘치는 전공 지식과 매력을 한 자리에서 직접 체험하고 알아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의 쏠쏠한 재미는 바로 부스 도장을 모으는 '스탬프 투어'였습니다! 이곳저곳 열정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부스에 참여하다 보니, 어느새 제 도장판에는 도장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스탬프를 4개 이상 채우면 운영부스에서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었는데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응모했지만, 아쉽게 행운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쓰라린 속도 잠시, 스탬프 투어 보상으로 받은 푸드트럭 교환권으로 닭꼬치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낙첨의 슬픔을 단번에 잊게 해줄 만큼, 입안 가득 퍼지는 행복과 함께 페스티벌의 낭만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공탐색 페스티벌은 학우들이 서로 소통하며 미래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직접 맛보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타 학과의 다채로운 매력을 들여다보며 시야를 넓히고, 나의 진짜 성향과 관심사를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비록 하늘은 조금 흐렸을지라도, 스스로의 길을 고민하고 그려나가는 학우들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대학 생활과 진로 설계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AI creator

나도 이제 AI 크리에이터!
AI로 이미지부터 숏폼까지 마스터하기

작성자 주예린

오늘날 콘텐츠는 전공을 막론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온전한 영상이나 이미지로 구현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창작의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1인 미디어 비교과프로그램은 막막함 앞에 선 대학생들을 위한 실천
가이드입니다. ChatGPT부터 NotebookLM, 이미지 및 음성 생성 AI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하나의 완성도 높은 미디어를 빌드업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담았습니다.

생성형 AI는 단순히 트렌디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대학
생활 속 발표 자료 제작이나 학업 보고서 작성 등
다방면에서 우리의 역량을 극대화해 주는
유용한 무기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기술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넓혀갈 대학생
크리에이터들에게 실용적이고 단단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세 AI, 나만 안 써볼 수 없지!

요즘은 전공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독창적인 생각과 내면의 가치를 어떤 형태의 콘텐츠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지가 개인의 핵심 역량이자 강력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제작되는 짧은 숏폼 영상이나 카드뉴스는 단순히 개인의 취미 생활을 넘어,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브랜드와 자신만의 색감을 만들어내는 가장 확실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만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보려고 하면 수많은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주제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기획 단계부터, 짜임새 있는 대본을 쓰고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을 고안하며, 목소리 더빙과 배경음악 믹싱, 정교한 영상 편집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머릿속에만 담아둔 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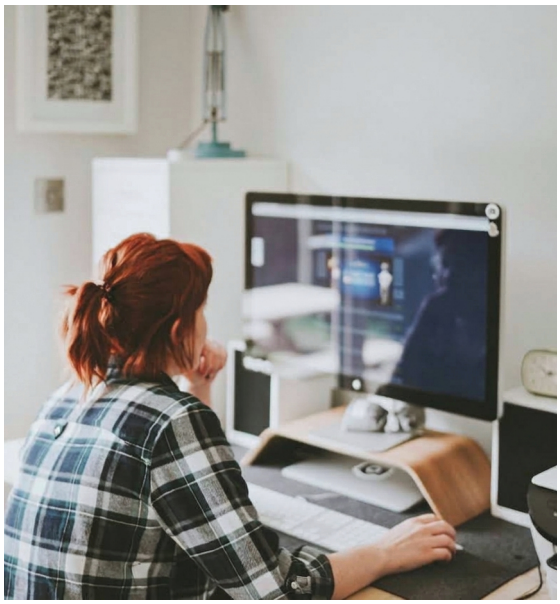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한 '1인 미디어 비교과프로그램'은 이러한 고민과 한계에 직면한 학우들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론 학습 및 일회성 기술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콘텐츠 기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단계부터 최신 생성형 AI 기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실전 제작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경험할 수 있는 알찬 교육 과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스스로 가치 있는 정보를 발신하는 주도적인 '정보형 크리에이터'로서 당당히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튼튼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전문가에게 배우는 실전 AI 제작 가이드

이번 프로그램은 유튜브 '동테크' 채널을 운영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AI 교육 전문 기업 '에이아이론'의 김동준 대표님이 강사로 나서 완성도 높은 실무 밀착형 강의를 선보였습니다.
총 5가지의 혁신적인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기획부터 최종 비디오 퍼블리싱까지 이어지는 유기적인 콘텐츠 제작 시스템(Workflow)을 학생들이 손으로 직접 만지며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듣는 온라인 클래스!

바쁜 학기 중 학업과 아르바이트, 다양한 개인 일정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재학생 학우들을 배려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교육은 지정된 일정 동안 매일 저녁 6시부터 밤 8시까지, 하루 2시간씩 총 3일 동안 집중력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실시간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Zoom)을 전면 활용하여, 학생들은 편안하고 익숙한 개인 공간이나 조용한 도서관, 카페 등 어디서나 자유롭게 접속하여 강사님의 화면을 보며 실습을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의 진정한 매력은 다루는 툴들의 광범위한 실용성에 있습니다. 여기서 배운 기술들은 단순히 한 편의 과제용 영상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 마주하는 다양한 전공 발표 자료 제작, 동아리나 대외활동용 카드뉴스 디자인, 대규모 학업 보고서 작성 시 복잡한 원문 자료 분석 요약 등 다방면으로 즉각 응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존지식과 디지털 역량으로 직결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많은 학우들은 수업을 듣는 도중에도 “과제나 공모전 준비할 때 당장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실무 스킬”이라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참여 소감

처음에는 그저 유튜브나 SNS 숏폼 플랫폼에 돌아다니는 세련된 AI 이미지와 영상들을 보며 막연한 동경과 호기심을 가지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ChatGPT에서 영감을 얻고, NotebookLM으로 가공한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구조화하며, 나노바나나2를 사용해 내 손으로 감각적인 이미지를 그려내고, 마지막 오리지널 사운드까지 입혀 하나의 정교한 독립된 비디오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글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생성형 AI 기술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머나먼 미래의 두려운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대학생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고 사소한 창의성과 상상력을 10배, 100배로 증폭시켜 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날개이자 파트너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해준 좋은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본 비교과 과정은 한정된 정원으로 인해 모집인원 충족 시 예고 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학우들은 SU-PLUS 사이트의 신청 링크를 통해 늦지 않게 빠르게 지원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삼육대학교의 수많은 학우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파도를 멋지게 서핑하며 스스로 빛나는 미래형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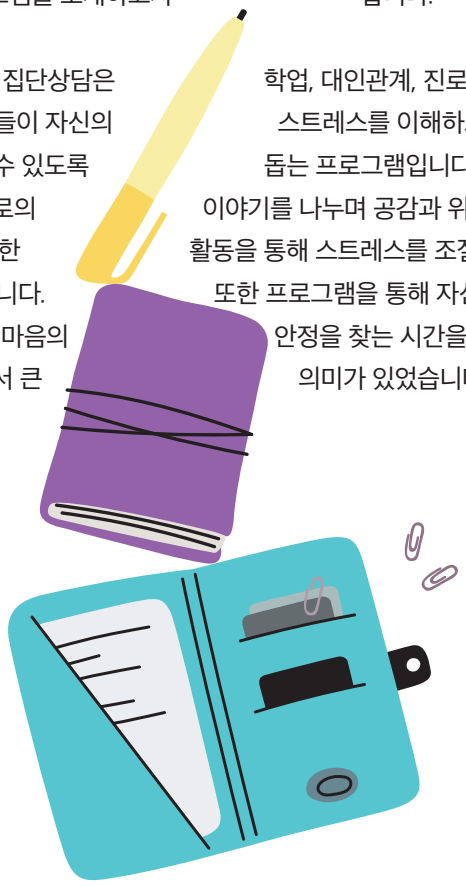
Group Counseling

스트레스 뿌셔 ! '스트레스 타파' 집단상담 프로그램

작성자 방다인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및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6학년도 1학기에 직접 참여했던 '스트레스 타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트레스 타파' 집단상담은 학업, 대인관계, 진로 고민 등으로 지친 학생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과 위로를 경험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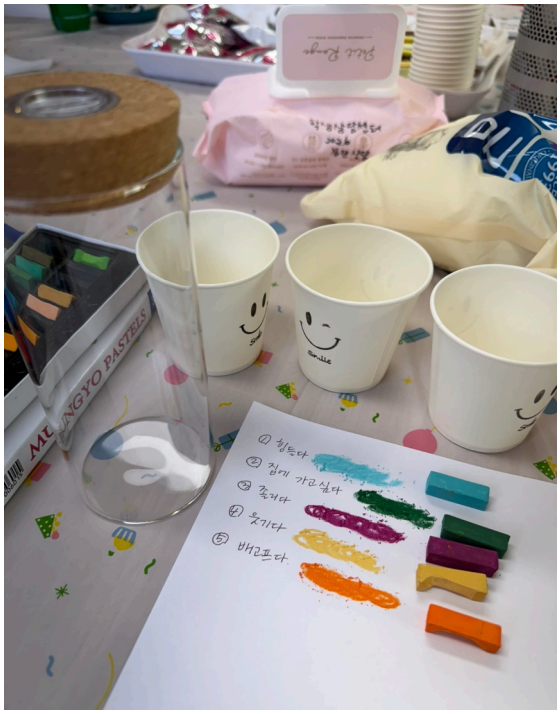
1. 학업과 일상 속에서 누적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집단 활동을 통해 공감과 지지를 경험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한다.
2.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자신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기대효과

1. 학생들이 자신의 스트레스 원인과 감정 상태를 스스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
2.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대처 방법과 자기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다.
3. 참여 학생들의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여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활동순서

1. 과일 이름으로 별명 정하기
2. 자신을 상징하는 것 그려보기
3. 낙화 그리기
4. 스트레스 등불 만들기
5. 나의 심리상태를 사진으로 나타내기
6. 응원의 글귀를 담은 캘리그라피



참여 학생 인터뷰

Q1.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평소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SU-TALK 알림을 통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Q2. 참여 전에는 어떤 스트레스나 고민이 가장 컸나요?

참여 전에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다 보니 쉽게 지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혼자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답답함과 무기력함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제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제일 먼저 과일 이름으로 별명을 지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징을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낙서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낙서한 종이 속에서 보이는 그림을 찾는 활동을 진행했고,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감정들로 소금등불도 만들었습니다. 사진으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해 보기도 하고, 캘리그라피로 응원의 문구를 적었습니다.



Q4. 프로그램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나요?

스트레스를 생각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지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좋았습니다.

Q5.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낙화 그리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무의식에서 나의 스트레스 요소를 발견하고, 또 그런 스트레스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속에서 많이 해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Q6.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참여하거나 주변에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가 아프셨던 분들,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지 감이 안잡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또한 평소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와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Q7. 참여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이번 스트레스 타파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평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지내고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힘들다고 생각만 했던 감정들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스트레스를 혼자 참기보다 적절히 표현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Job-seeking club

꿈을 향해 FLY UP!
취업동아리 참여수기

작성자 권시은

플라이업(FLY-UP)은 국내·외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목표로 하는 4학년 학생들이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동아리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면접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혼자 준비하다 보면 막막하거나 지칠 때가 많은데, 동아리 활동을 통해 꾸준히 준비할 수 있었고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플라이업(FLY-UP)의 정기 활동

플라이업(FLY-UP)에서는 매주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며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하는 활동은 뉴스 기사 스피치입니다.

동아리원들이 돌아가며 항공업계 또는 사회 이슈와 관련된 기사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각자 기사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단순히 기사를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사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니 면접 답변을 구성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다른 동아리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기사를 읽더라도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느낀 점이 달랐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발표하는 친구들의 말하는 속도나 전달 방식, 표현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점을 배우고 제 발표에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정기 과제는 매주 3회 진행하는 미소 영상 촬영입니다. 객실승무원에게 밝고 자연스러운 미소는 가장 기본적인 역량 중 하나이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과제는 3분 동안 미소를 유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 근육이 금방 굳고 웃는 표정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니 점차 자연스럽게 미소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촬영한 영상을 직접 확인하면서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습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의 높이가 달라지는 부분이나 시선 처리, 자세 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짧은 과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니 표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실제 면접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실전 감각을 높인 특강과 영상면접 실습

플라이업(FLY-UP)에서는 매달 한 번씩 강사님을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강에서는 최근 항공사 채용 동향과 면접 준비 방법, 이미지 메이킹, 답변 구성 방법 등 실제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인터넷이나 책으로 접하는 정보와는 달리 실제 면접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셔서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취업 준비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월에는 영상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실습도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많은 항공사에서 영상면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면접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한 명씩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촬영을 하기 전에는 단순히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시선 처리와 표정, 말하는 속도, 자세까지 모두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는 강사님께서 한 명씩 영상을 보며 세심하게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내용뿐만 아니라 목소리의 톤과 속도, 자세, 손동작, 표정 등을 자세히 알려주셨고, 각자에게 잘 어울리는 이미지와 분위기까지 함께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어울리는 이미지와 보완하면 좋을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습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긴장하면 시선이 흔들리는 부분이나 불필요한 습관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연습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의식하며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 연습했다면 알기 어려웠을 부분을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3.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 모의면접

정기 활동과 특강 외에도 시간이 맞는 동아리원들은 수업이 끝난 후 함께 모여 모의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각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작성해 온 뒤 서로 읽어보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답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질문의 의도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더 좋은 표현은 없는지 함께 의견을 나누며 수정했습니다.
혼자 답변을 작성할 때는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기 어려웠지만,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객관적으로 답변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작성한 답변을 읽어보며 같은 질문이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을 풀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좋은 표현이나 답변 구성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분위기 덕분에 부담 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함께 준비한다는 든든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활동하며 느낀점

플라이업(FLY-UP)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취업은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함께 준비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주 뉴스 기사 스피치와 미소 영상 과제를 수행하며 꾸준히 기본기를 다질 수 있었고, 특강과 영상면접 실습을 통해 실제 면접에서 필요한 역량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의면접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답변을 보완하는 과정은 실제 면접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서로 응원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플라이업(FLY-UP)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보완하고, 실제 면접에서도 자신감 있게 준비하여 국내·외 항공사 객실승무원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플라이업(FLY-UP) 활동은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 준 뜻깊은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Market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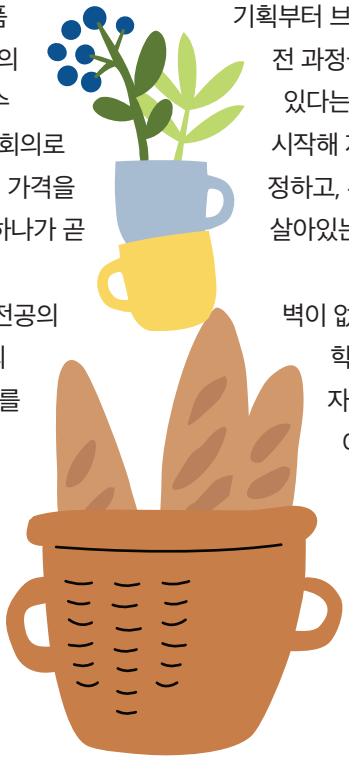
현장 리포트
2026 콩콩마켓

작성자 조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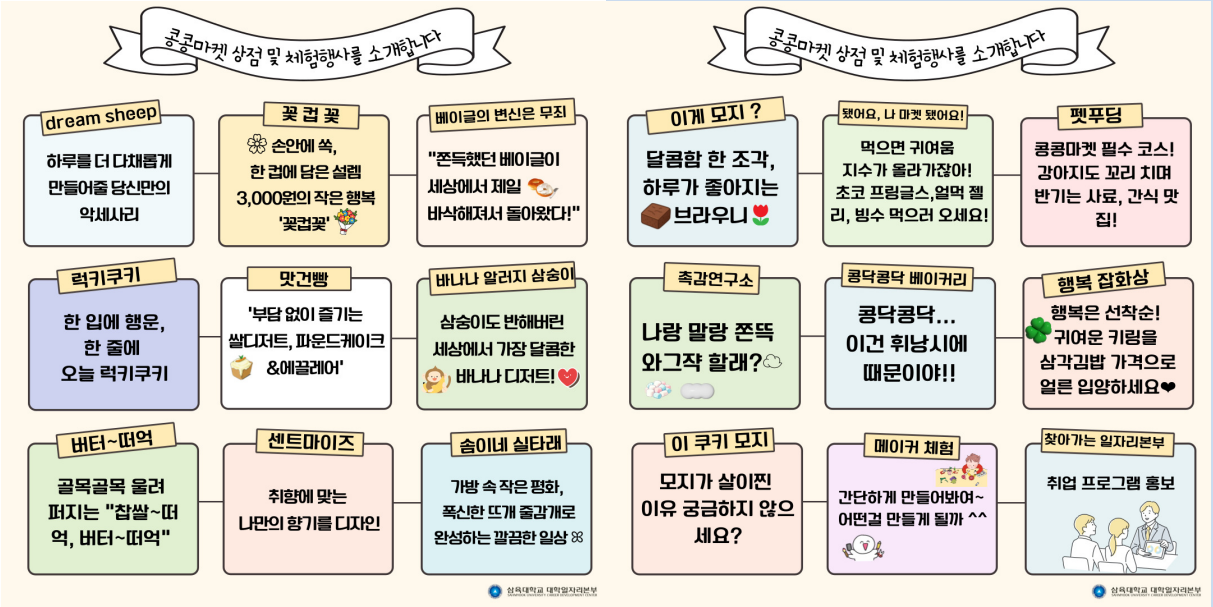
마켓이 된 삼육대 캠퍼스

2026년 5월 6일과 7일, 이틀간 삼육대학교 캠퍼스는 작은 창업 무대로 변신했다. 매 학기 학우들의 기대를 모으는 대표 프로그램, '콩콩마켓'이 다시 문을 연 것이다.

콩콩마켓은 학생들이 직접 마켓을 운영해볼 수 있도록 기획된 플리마켓형 창업 체험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자리가 아니라, 상품 기획부터 브랜딩, 마케팅, 판매, 정산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학생 스스로 주도하며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이디어 회의로 시작해 제품을 만들고, 로고를 디자인하고, 가격을 정하고, 홍보 문구까지 고민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곧 살아있는 창업 수업이 된다.



또 다른 특별함은 전공의 벽이 없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학과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손재주를 자유롭게 뽐낼 수 있었고, 취미로 이어오던 일을 창업으로까지 확장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개성이 넘치는 18개의 부스

콩콩마켓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부스별 개성이었다. 유행하는 먹거리만 늘어놓는 마켓이 아니라, 각 팀의 취향과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녹아든 상품들이 등장해 구경하는 재미까지 챙겼다.

먹거리 부스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디저트부터 시원한 음료까지 먹거리 부스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예쁜 포장과 합리적인 가격까지 더해져, 구입한 먹거리를 손에 하나씩 들고 다니는 학우들의 모습이 마켓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감성 소품 부스

컵 안에 꽃을 담아 테이크아웃 하듯 들고 갈 수 있게 만든 '꽃컵꽃'이라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사진을 찍는 학우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꽃 한 다발보다 부담 없이, 그러나 훨씬 특별한 선물이 되는 이 아이템을 만날 수 있었다.

취향 저격 부스

원하는 향의 향수·샤쉐를 구매할 수 있는 센트마이즈 부스, 유행하는 말랑이를 파는 촉감연구소도 인기였다. 특이한 말랑이를 만져보거나 시향지에 코를 대고 고민하는 학우들, "이 향 진짜 좋다"며 친구를 부르는 모습까지, 부스 자체가 하나의 작은 공방처럼 운영됐다.

반려동물 부스

사람만을 위한 상품이 아닌, 반려동물을 위한 부스도 눈길을 끌었다. 삼육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학우들이 운영한 '펫푸딩' 부스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간식을 만들어 판매했다.

핸드메이드 부스

직접 만든 키링, 액세서리 부스도 빼놓을 수 없다. 손으로 하나하나 엮은 비즈 팔찌, 개성 있는 캐릭터 키링 등 '세상에 하나뿐인' 상품들이 진열대를 채웠다. 만든 사람의 시간과 정성이 그대로 담긴 소품들은, 가격표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순간들

판매자도, 손님도 모두 학생이다 보니, 한창 부스가 붐빌 시간에 "저 이제 수업 가야 해서요"라며 급히 자리를 뜨는 학우들이 많았다. 부스 운영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팀원끼리 시간표를 맞춰 교대로 부스를 지키고, 강의를 마치자마자 헐레벌떡 뛰어와 상품을 준비하고, 판매하는 모든 현장이 정겨운 풍경이었다. 행사 마지막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그러나 오후로 접어들자 예상치 못한 비 소식이 들려왔다. 잠시 뒤



정말로 후드득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켓을 가득 메우던 학우들의 발길이 순식간에 뜸해졌다. 부스마다 상품들과 테이블을 천막 안쪽으로 옮기며 분주해졌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부스들은 저마다의 '시련'을 마주했다. 하지만 그 시련이야말로 콩콩마켓을 실제 창업 현장, 자신만의 경험으로 만든 순간이었다.

부스 운영기

이번 콩콩마켓에는 필자도 동물자원과학과 취업동아리 'Pet Food Lab'을 통해 강아지 간식 부스 '펫푸딩'을 운영하였다. 막상 부스를 준비하려니, 사소해 보이던 것 하나하나가 다 고민거리였다. 먼저 간식을 어떤 용기에 담을까부터가 문제였다. 예쁜 포장은 눈길을 끌지만



원가가 올라가고, 실용적인 포장은 저렴한 대신 매력이 조금 부족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가격을 정하는 일도 그랬다. 원재료비, 인건비, 포장비를 꼼꼼히 계산해봐도 마지막에는 늘 "학우들이 이 가격이면 살까?"라는 소비자 감각을 함께 고려해야 했다.

그렇게 시작된 이틀동안 부스 뒤에서 부지런히 장부를 썼고, 지나가는 학우들에게 상품을 소개했고, 손님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눴다. 짧은 이틀이었지만 그 안에서 창업의 맛을 진하게 보았다.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일, 판매자의 책임을 지는 일, 그리고 팀원과 함께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 이 모든 과정이 강의실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다.

참여자들의 미니 인터뷰

판매자 R씨(펫푸딩 부스): 교내 행사 중에서도 참여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처음엔 판매 멘트를 하는 게 어색했는데, 손님들과 대화하다 보니 어느 순간 소통 자체가 즐거워졌어요. 나중에는 지나가며 구경만 하시는 분께 제가 먼저 말을 걸 만큼 용기가 생겼어요.

판매자 J씨(솜이네 실타래 부스): 제가 직접 만든 상품을 손님들이 구매해주시는 걸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판매자 A씨(콩닥콩닥 베이커리 부스): 친구들과 함께 이번 행사를 위해 직접 휘낭시에를 구웠어요. 학우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맛있게 드시거나 선물용으로 사가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구매자 M씨: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처음 본 컵에 담긴 꽃이었어요. 사진 찍기도 좋고, 들고 다니면서 은근 자랑도 되서 너무 좋았어요. 상품을 사면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어서 완전 일석이조예요.

콩콩마켓이 남긴 것

콩콩마켓은 단순한 마켓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고, 판매하며 완성해낸 작은 창업의 무대였다. 18개의 부스에는 18개의 브랜드가 있었고, 18개의 시련이 있었으며, 18개의 성장 스토리가 남았다.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 발을 동동 굴렀던 순간, 예상보다 많은 손님에 행복한 비명을 질렀던 순간, 강의와 부스 사이를 뛰어다녔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은 교재 속 이론이 현실이 되는 살아있는 수업이었다. 그리고 그 수업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었다.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창업을 맛보았다. 이 경험은 단순한 이틀의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와 도전에 이어질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다. 다음 학기에도 콩콩마켓은 다시 열릴 것이다. 마켓을 열어보고 싶은 학우, 창업이 궁금한 학우, 그리고 그저 캠퍼스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은 학우 모두에게 콩콩마켓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SU 2026 letter news

SU-대학혁신지원사업

웹소식지 vol.1

University innovation 대학혁신지원사업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